

## 서 평

James Preston, ed., *Mother Worship: Theme and Variations*,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2.

## 서 성 철

어머니, 또는 대지모에 대한 숭배사상은, 그것이 뒤에 제도화된 종교하고 결합돼 그 의미가 변질이 됐건 안됐건간에 우리가 의식하든 안하든간에 시공을 초월해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문화적인 맥락에 따라 그 차이점은 있을지언정, 이 원형적 이미지에 대한 숭배는 세계 도처에서 보여지는 문화적 현상이다. 신석기 시대의 유물들에서 보여지는 풍만하다 못해 그로테스크한 가슴을 가진 토기인형들, 동굴의 벽화, 이집트의 이시스, 바빌로니아의 이슈타르, 그리이스의 데메테르(Demeter), 아르테미스, 로마의 키벨레, 인도의 칼리 여신, 제주도 우구굿의 바리데기 공주등의 이름은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여신, 또는 태모신(太母神: Great Mother)의 이름들이다.

인류역사에 있어서 여신의 숭배사상이나 신앙은 인류가 수렵생활이나 동굴생활을 청산한 뒤 농경생활로 진입하면서 시작되는데, 이런 신앙은 시간적, 공간적 차이에 따라 몇몇 다양성이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자연과 인간과의 어널로지(Analogy)와 연관되어 있고, 또 그것은 대지와 관련지어 농경사회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풍요와 다산에 대한 염원, 회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자연은 인간에게 늘 혜택을 베풀고 좋은 수확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다시말해 자연은 인간에게 있어 언제나 자비로운 존재만은 아닌 것이다. 인간이 가장 친근하다고 믿었던 자연은 주기적으로 홍수, 가뭄, 폭풍과 같은 모습으로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 무시무시한 모습으로도 나타나는 것이다. 이럴때 자연은 자비롭고 사랑스런 어머니로뿐만 아니라 자연의 아들인 인간에게 엄청난 해를 가져다 주는, 에리히 노히만(Erich Neumann)이 이야기한 것처럼 무시무시한 어머니(Terrible Mother)의 속성을 가진 두려운 존재로 변모하게 된다. 여기에 자연의 두 극단적인 원형적 이미지가 있다. 그리이스 신화의 아르테미스 여신은 출산의 수호신이자 동시에 임신한 여자들에게는 그것을 방해하는 두려운 존재며, 아테나 여신은 평화의 신이자 전쟁의 신이다(아테나 상을 보라, 한손에는 책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있다). 이런 서로 합치될 수 없는 상반되

는 가치를 지닌 두 모습이 바로 태모신(Great Mother)이 가지고 있는 두 속성이다. 이런 예는 서구예가 꼭 아니더라도 여러문화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보편적 상징이기 때문에 여기서 길게 열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James Preston이 편집한 *Mother Worship*은 큰 줄거리로 보아서 방금 이야기 한 이런 태모신의 양 속성에 대한 기술이다. 그러나 이 책은 같은 테마를 다룬 기존의 책들처럼 모숭배사상의 발상이나 기원, 심리적 고찰, 종교성과 같은 사변적, 관념적 저술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모신 숭배사상에 대한 여러 인류학자들, 사회학자들의 현지조사의 결과물이다. 다시 말해 이 책의 기본 바탕은 태모신의 두속성을 배경으로 깔면서 모신숭배사상이 현대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며, 또 이런 사상이 전세계적으로 어떤 보편성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서는 어떤 특수한 모습을 띠고 있는가에 대한(이것은 책제목 *Mother Worship*의 副題 “Theme and Variations”에 드러나 있다) 비교접근적 시각에서 바라본 보고서이다. 물론 이 책은 모 숭배신앙에 관해 전 세계적으로 우리들이 모을 수 있는 자료들의 집합체는 아니지만(여기에는 오스트레일리아나 태평양제도, 극동이나 남아메리카, 이슬람세계는 빠져있다) 여기 실인 19편의 글들은 유럽, 멕시코, 인도, 스리랑카, 타이, 인도네시아, 아프리카등 모숭배현상이 가장 잘 드러난 주요지역들의 의식(ritual), 축제, 종교의 Syncretism을 현지조사 분석함으로써 비슷한 역사적 뿌리나 공통의 문화적 맥락(context)을 가진 독자들에게 여성신의 신성한 이미지가 어떤 면에서 유사하고 어떤 면에서 틀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책 전체는 지역별로 구분, 4장으로 구분되어있다. 1장에서는 유명한 멕시코의 과달루페 성처녀 신앙을 다루면서 스페인 정복자들이 가지고 온 기독교의 과달루페 성처녀와 신대륙 원주민의 토착여신 토난친(Tonantsin)이 어떻게 결합됐고, 또 멕시코의 백인이나 원주민들 사이에서 이 변형된 여신이 어떻게 저항없이 받아들여지게 됐으며, 이 과달루페 성처녀가 멕시코 독립전쟁과 혁명과 같은 대 변혁의 시기에 어떤식으로 국민적 심볼로 변모하게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유럽의 마돈나 콤플렉스’(European Madonna Complex)라는 제목하에 2장에 실려있는 5개의 논문 역시 이탈리아, 아일랜드, 러시아등등의 유럽제국에 있어서의 모신 Syncretism(기독교의 마리아와 각각의 나라들의 토착 여신들과의 결합)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장에는 특별히 몇몇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Leonard Moss는 유럽에 널리 퍼져있는 검은 마돈나(Black Madonna)숭배사상을 기독교가 유럽에 들어오기전의 동방세계(여기서는 주로 메소포타미아나 바빌로니아 및 그리스)의 풍요의 여신인 대지모(大地母)와 기독교의 Syncretism으로 보고 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Icon이나 조각품에서 보여지는 백색의 마돈나는 흑토의 비옥함과 관련지어 흑색의 마돈나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은

검은색은 땅의 비옥함, 죽음의 힘, 어두움 그리고 공포와 동일시하는 융 학파의 해석에 대단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서말한 과달루페 성처녀의 얼굴색이 왜 갈색인지에 대해 좋은 근거를 제시할수 있어 시사적이다. 뒤에 이어지는 아일랜드의 수호여신 브리지드(Brigid)의 예배의식도 선주민인 켈트족의 봄의 축제때 숭앙받았던 대지모 여신과의 Syncretism을 반영한다. 이탈리아의 종교축제 ‘푸젠티’(Fujenti)의 식은 제도화된 국가종교와 민중신앙사이에 존재하는 갈등과 통합을 잘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나폴리근처의 한 성당에서 매년 거행되는 Arch의 마돈나 페스티발은 죽음과 부활의 옛 디오니소스의 축제에 다름아니며 성모마리아의 밀접한 숭배자인 ‘푸젠티’는 광란의 바카스신도들이나 다름바 없다. 문제는 이런 무질서한 순례여행이나 이교도적인 축제가 어떻게 기독교에서 받아들여지며, 또 그 우상숭배가 교회안에서 행해지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제시된 공식종교와 민중사이에 행해지는 제식사이에서 드러나는 긴장은 바흐젠이 적절히 설명해준, 지배적인 유럽의 기독교 문화와는 반대에 서 있는 기층문화의 다이내미즘을 확인시켜주며, 또 억압받는 계층은 이 생생한 혼합종교에서 그들의 역동적인 힘과 영원을 발견하며 또 민중은 이 종교를 지배자들의 착취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 이 책에서는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카리브지역의 혼합 종교(쿠바의 산테리아나 아이티의 ‘부두’ 신앙 등)도 기독교라는 가면에 아프리카 노예들의 저항적 전통신앙이 위장돼 있는 또 다른 종교의 Syneretism이다. 3장에서는 인도의 벵갈, 타밀지역의 여신들이 인종이나 신분, 언어와 정치 경제적 지위의 상이함과 사회 계층의 분화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역민들을 통합하는 상징으로 나타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여신 카나기(Kannagi)는 4천만명에 달하는 타밀사회의 문화가 인도의 가장 중심적인 힌두문화와 구별되어질 수 있는 최고의 상징이며, 또 이 여신은 지배적인 힌두문화에 맞서 타밀인들이 그들의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유지할수 있는 구심점으로 등장한다. 타밀사람들과는 달리 벵갈지역 사람들은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각각 다른 여신들을 숭배하게 되는데 궁극에 가서는 이런 다른 여신들의 모습은 어머니의 두 속성, 자비롭고 보호하는 어머니상과 병을 가져다 주고 또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한 여신이 가지고 있는 두 모습의 분화된 상이다. 이런 분리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본적인 어머니상은 바로 대지로 부자나 가난한 자들이나 같은 마을이나 지역에 태어난 사람들은 같은 어머니 대지의 자궁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해보면서 벵갈사회의 종족적 동질성을 유지하는 매개체로 작용한다. 4장에서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성한 여신상들에 대해 기술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들은 앞서 말한 똑같은 사실들이나 설명들을 발견할 수 있다.

요약하지만 이 *Mothor Worship*에 실린 19편의 논문, 에세이들이 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머니의 이중적 성격은 어디에서나 볼수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며, 어머니나 태모

신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는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한 문화권 안에서 여러 이질적인 문화의 다른 요소들을 통합하는 원리로 작용하며, 또 모숭배사상은 국가의 정치적 파우워와 연결되면서 멕시코의 경우처럼 변혁이나, 혁명, 근대화의 동인이 될 수 있는 국민적 심볼로 바뀐다는 것이다. 또 이 책의 주요 논거를 보면 여신들의 모습은 이상화된 모습으로 현재에 있어서도 여성의 역할이나 가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공식종교와 일반대중이 믿는 민속신앙 사이의 충돌에는 언제나 여러 여신의 이미지가 개입돼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들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숭배 신앙과 관련해 익히 알고 있었던 지식들이나 논의들의 많은 부분이 잘못돼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자면 근대화를 경험한 사회에서(소위 제3세계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전통신앙(특히 대지모신앙)은 파괴되고 사라지고 없으며, 부계중심 사회인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모숭배 사상은 없거나 아니면 그리 중요하지 않다. 또는 유럽역사에서 모숭배사상은 단절되어 있으며, 또 이교도적인 유럽의 대지모 신앙은 정통기독교에 그 자리를 넘겨주었다는 등등. 이런 문제점들은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풀려지고 잘못된 시각은 교정될 것이다.

모숭배사상이라는 거대한 테마를 놓고 여러 학자들의 여러 지역을 망라한 이 인류학 보고서는 서로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모숭배사상의 다양한 양상을 통해 여러지역, 여러 민족들에게서 보여지는 종교적 제식과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져준다. 궁극적으로 보면 그 물음은 문화의 다양성은 무엇이고 또 그 단일성은 무엇인가라는 인류보편의 문제점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책의 장점은 단순히 인류학적 연구보고서의 경지를 넘어서 문화와 관련된 모든 학문들, 종교학, 사회학, 심리학, 문화, 심지어 페미니즘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독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줄 것이다.

서성철, 고려대 강사

Tel : 928-6409